제Ⅴ부

대 종 회

| 제1장 | 우리 부안·부령김씨 가문의 변천사

1. 대종회의 탄생

(1) 앞에서 밝힌 문정공 묘소를 새로 단장한 후, 경종12년(1722년) 처음 재각 경지재를 건립한 후, 영조48년(1772년) 3월 19일에 다시 중건하고, 그 후 실화로 소실되어 순조 23년(1823년) 2월6일에 다시 중건하였음.

(2) 경지재를 처음 세운 후, 문정공의 행적과 자손들을 기록한 신도비를 정조16년(1792년)에 재각 앞에 세웠으나

(3) 당시의 정보 부족으로 문정공의 자손을 기록하면서 아들의 차례가 틀리고, 그 이후의 자손 기록에도 누락되어 일부 자손만 기록하는 등 잘못된 곳이 많았다.

(4) 그 이후 150여 년 동안 자손들 간의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었다. (신도비문은 우리 전체의 얼굴이자 자랑스런 금석문임)

(5) 그러던 중 8.15 광복이후부터 가문의 각파 원로 어른들이 우리 가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신도비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자손록 부분만을 수정키로 하였다.

(6) 드디어 1960년 종인(일가)들이 성금을 모아 신도비를 개수(새로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듦)하게 되었음.

(7) 이를 계기로 화합과 단결을 위한 부령김씨 대종회를 결성키로 하여 소윤공 자손 네 분, 군사공 자손 다섯 분, 소감공 자손 두 분, 감찰시승공 자손 한 분 등 12명의 이사로 구성된 부령김씨 대종회를 1969년 음력 10월1일 문정공 시제(묘제)일을 기하여 발족한 후 어언 50년이 다 되었음..

(8) 대종회의 목적은 문정공 선조의 유택관리와 소속된 재산관리, 선조선양사업, 각종 문화재 보호, 그리고 후예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도모함에 있다.

2. 대종회관 건립

(1)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대종회를 결성한 후 문정공 유택관리 그리고 경지재의 개보수 사업 등 많은 종중사업을 하던 중

(2) 1986년 경지재 부근 종중임야의 참나무를 벌채 매각한 대금 3,750만 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3) 오늘날 우리 자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주신 조상님에게 보답하고 종족간의 화목과 영원한 번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과 아울러 우리의 관향인 부안읍의 중심가에 우리 종족의 상징 건물로 대종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하고



대종회관 전경

2년간의 모금 활동을 펼쳐

(4) 38개 문중과 900여명의 종인들의 성금으로

(5) 4억여 원을 들여 1989년 10월 30일에 지상4층, 지하 1층 총면적 1,330㎡(400평)의 현재 모습인 대종회관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6) 대종회관의 목적 역시 운영 수익으로 위선사업과 육영사업을 하게 됨.

3. 경지재

(1)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정공 유택을 확인한 후, 세운 경지재 본채가 100여 년 동안 무려 세 차례의 중건을 거듭한 후, 180여년의 오랜 세월동안 퇴락하여 중건을 논의하던 중 2001년 봄 문정공 춘향묘제 이후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경지재 본채

(2) 모든 자손들이 기와 한 장 한 장을 쌓는다는 애족심으로 6년여 동안 42개 문중과 700여 종인들의 성금 4억여 원이 모여 2007년에 본채를 동판기와로 신축하고, 문간채도 동판기와로 보수, 서편재실의 보수, 화장실 신축, 관리사 신축과 경지재 내외 조경사업과 묘소 진입로 포장공사까지 마쳐 오늘의 웅장하고 자랑스러운 재각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3) 본채의 동판기와 공사는 신일금속 종엽씨의 특별지원(7천만원 상당)으로 시공하였다.

☞ 그 후 서울종친회 김창오 회장의 발의로 문정공 묘역의 지방문화재지정 신청으로 2009년 10월 23일, 드디어 문정공 유택 일대 1,000평을 전북지방 유형문화재 기념물 127호로 지정받음.



경지재 정문

4. 대종회 구성과 대종회관 건립 이후의 제반 활동

(1) 대종회의 발족으로 각파의 의견조율을 통한 화합으로 1980년 발견한 관시조(마의태자: 김부대왕)의 위패를 모신 대왕각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이의 개보수를 논의하다 2001년 신축키로 결의하고, 각파 문중의 성금으로 원형을 보존한 상태의 현재의 모습으로 신축하고, 2014년 대술종인, 형로종인, 전

주종친회장 인술종인, 서울지역 채옥, 삼철종인의 성금으로 단청작업까지 완료함.

(2) 특기할 것은 2001년 신축 후 관시조의 위패만 모신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삼안건설 회장이신 형주종인의 특별한 지원금으로 유명화가에게 의뢰하여 고증을 통한 마의태자의 영정을 1억여 원을 들여 제작하여 모시게 되었음.

(3) 2011년 문정공 탄신 800주년을 맞아 탄신기념사업과 아울러 현창사업을 전개하여 문중과 전국의 종인들의 성금 2억3천여만 원을 모금하여 문정공 시비건립, 문정공학술대회 개최, 대종회보 문정800을 수회 발행하는 등 활발한 현창사업을 시행하였음.

(4) 2014년부터 2년간에 걸쳐 문정공 유택 둘레에 곡장(능, 묘 따위의 무덤 뒤에 기와를 덮어 둘러쌓은 나지막한 담)을 당시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인 양원종인의 협조로 설치하게 됨.

(5) 2017년 봄에는 문정공 춘향묘제 이전에 서울종친회 삼철종인(서보실업 대표)의 특별성금 4천여만 원으로 경지재 주차장 300여 평과 신도비 한글해설판석 등을 제작 설치하게 됨.

| 제2장 | 익히고 알아두기

1. 재각과 향사일

(1) 위선사업(선조를 모시는 사업)으로 우리 가문에서는 대대로 선영을 소중하게 관리하여 20여 대에 가까운 조상님의 묘소를 관리하고 있다.

(2) 따라서, 우리 가문은 집성촌마다 선영 인근에 재각을 지어 관리하고 있으니

(3) 그 대표적인 재각의 현황은

㉮ 경지재: 문정공 재각(1722년 창건)

㉯ 계경재: 소윤공 재각(1800년초 저존재 건립 후 현재 위치에 건립)

㉰ 취성재: 군사공 재각(1826년 건립)(승지공 겸용)

㉱ 치성재: 소감공 재각

㉲ 경모재(종사랑공), 모경재(장사랑공), 운오재(진사공), 저존재(진사공), 파산재(승의랑공), 부재(시직공), 지선재(지평공), 명승재(사직공), 분포재(직장공) 등의 재실 외에

㉳ 각지의 집성촌인 곳에 선영봉사 재각은

-. 남원지역에 풍곡재(충경공), 식련재, 담허재

-. 정읍지역에 만수재, 효양재

-. 충남 당진지역에 계지재, 경성재

㉴ 그 외 부안지역에 각 선영마다 크고 작은 재각이 39여 개가 있으니

㉵ 많은 세장지(대대로 집안의 묘를 쓰는 땅)만도 작게는 수천 평에서 크게는 수십만 평이 있으니, 가히 부안지역에만 사유림 절반이상이 우리 가문의 산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그 외에도 선조님들의 충의비(충절과 절의를 지키신 분

들의 행적을 새긴 비석), 충효비, 효열비, 효자비, 효녀비, 열녀비, 열부비 등이 여러 지역에 세워져 있다.

2. 주요 시제일

향 사	일 시	장 소
경순대왕 춘향대제	양력 5월 둘째(토)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성거산
김부대왕 추향대제	음력 9월 9일	인제군 상남면 금부리 대왕각
문정공 춘향대제	음력 3월 1일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소윤공, 군사공 시제일	음력 3월 3일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석동산
소감공 시제일	음력 3월 1일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석불산

| 제3장 | 족보에 대하여

족보(族譜)는 동일한 씨족 가운데서도 본관(本貫)을 중심으로 시조 이하 세대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작성 당시의 친족 성원들에 이르기까지 선대의 이름, 즉 휘(諱)와 자(字), 호(號), 행적 등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동족의 근원을 밝히고, 세대의 순서를 알릴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이로써 동일 혈족의 혈통을 존중하고, 가통을 계승하여 명예로 삼기 위해 그 역사와 계통을 밝히는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족보의 역할은 가문의 조상(대부분 부계)을 높이고(崇祖), 그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일족들을 모아 그 위아래 관계와 수평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족보에 이름이 실린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 즉 신분을 밝힘으로써 부계로 연결된 동족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외척과 인척 관계의 확대를 말해주고 있다.

1. 족보의 분류와 개념

족보란 모든 보첩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그 안에는 많은 하위 개념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족보의 개념을 살펴보면

■ 대동보(大同譜)

각 본관별로 시조 이하 모든 파들을 계통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한 족보.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씨족을 모두 통합하여 만든 보첩이다. 같은 시조로부터 비롯한 중시조와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까지를 싣는다. 대종보(大宗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 파보(派譜)

분파된 파계만을 수록한 족보. 누락된 사람 없이 수단을 철저히 하는 한편, 조상의 행적을 상세히 수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만의 이름과 행적을 수록한다.

■ 세보(世譜)

각 파의 계보로서 파보와는 달리 상계를 밝히고 분파 경로 및 각 파간의 계통과 각 파조의 내력 등을 넣는 것이 다르다. 여러 파가 모여 공동의 상계를 만들기 때문에 세보를 모두 모으면 대동보가 되며, 각자는 자신의 파보만 소장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지(世誌)라고도 하여, 한 종파(宗派) 이상이 동보(同譜) 또는 합보(合譜)로 편찬하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을 수록한다.

■ 가승보(家乘譜)

한 개인의 직계 계통과 주요 조상에 대한 생일, 기일 등을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첩이다. 개인의 직계 존속만 수록하지만 대개 고조 이하 당내친(堂內親)은 모두 수록한다. 가승(家乘)이라고도 부르며, 시조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과 비속에 이르기까지 이름과 사적을 기록한 보첩으로, 다른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된다. 종가에서는 족보를 수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가(枝家)에서 이에 근거한 가승보를 만들어 보유하기도 한다. 첩(牒)의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첩(家牒)이라고 한다.

■ 계보(系譜)

계통만을 밝히기 위해 각 파, 또는 개인의 선조의 휘(諱)만 기록한 계열도나 세계표가 계보에 해당한다. 내림족보라고도 부르며, 한 가문의 혈연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를 수록하거나 어느

한 부분을 수록한다. (서양의 가계도를 보첩에 비교하면, 이 계보에 속하게 된다). 가승보와 마찬가지로 첩의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첩이라고 부른다.

2. 족보 간행과정

■ 종중회의

족보 발간은 종중회의에서 종중원의 의결을 걸쳐 정하는데, 대체로 10월의 시제에 가장 많은 종중원이 모이기 때문에 시제를 마치고 회의가 이루어졌다. 대개 한 세대, 약 30년 간격으로 간행되었지만 종중 내 문제 또는 시국 여건 등이 반영되어 늦어지거나 건너뛰는 경우도 있었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간행 간격이 짧아지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었다.

■ 수단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족보 작성의 주체와 동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료와 호구단자(戶口單子: 조선 시대, 3년마다 행하는 호구 조사 때 호주가 자기 호의 가족 구성을 기록하여 지방 수령에게 신고하던 문서) 등이 필요하다. 족보 작성은 후손들로부터 이러한 단자를 받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1934년에 간행된『경주김씨족보』의 범례에는 "동종의 사람 가운데 중간에 연락이 끊어진 사람이나 또는 계대가 불명확하여 찾기 힘든 사람, 족보를 만들 때 단자를 가져오지 않은 집안 등은 개수(改修:고쳐 수정함)할 때 단자를 가져오게 하고, 가져온 단자가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는 원보에 싣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보에 누락된 집안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적과 장적 등을 근거로 파계를 명백히 한 후에 족보에 올려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이렇게 수합된 단자는 각 지파별로 지정된 유사들이 족보에 등재될 이름이나 행적 등의 내용

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를 수단(收單)이라고 했으며 이전 족보 작성 때 단자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증거 자료를 잃어버린 경우 족보에 오를 수 없게 된다.

3. 시조·비조·중시조

시조는 맨 처음 조상으로 우리 가문은 경순대왕의 태자(일명 마의태자) 김일(金鎰), 비조(鼻祖)는 시조 이전의 조상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 우리는 김알지(金閼智)이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서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으로 중흥조라 부르기도 하는데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다. 우리는 시조로부터 9세이신 문정공(文貞公) 지포(止浦) 김구(金坵)가 중시조이시다.

■ 선계와 세계

선계(先系)는 시조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컬으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을 말한다.

■ 세와 대

세(世)는 조상을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가며 세는 단위이며, 대(代)는 후손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세는 단위이다. 세(世)는 조상으로부터 후손까지이며, 대(代)는 후손의 아버지로부터 조상까지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는 나와 아버지의 "사이"가 1대이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이'가 1대이고, 그와 같이 특정 조상에게까지 세어가는 수를 가리킨다. 현조할아버지는 나로부터 5대조이며, 나는 현조할아버지로부터 6세손이 된다. 이때 '6세손'을 '5대손'으로 쓰기도 한다.

■ 명자(이름, 성명)

명자(名字), 곧 이름자는 족보에 오른 이름을 가리키며, 보통 관례를 치르고 받는 관명(冠名)을 적게 된다. 관례 이전에 쓰던 이름은 아명(兒名)이라 한다. 또한 관례 때 주례자(主禮者)가 자(字)를 지어 주기도 한다. 또한 항렬자에 따라 보첩에 오르는 항명(行名)과 별호를 적게 된다.

■ 항렬과 항렬자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 사이에서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려는 문중율법이며, 항렬자(行列字)는 이름자 가운데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부른다.

때로는 항렬자의 배합법을 항렬이라 부르기도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쓰인다.

- 십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의 순서로 쓴다.
- 십이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순서로 쓴다.
- 숫자를 포함한다. 이때 글자의 일부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 오행상생법(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에 따라 쓴다. 이때 글자의 일부에 오행을 뜻하는 부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가문도 이에 따른다.

항렬은 장손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아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할아버지뻘이 되는 경우도 있어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4. 부안·부령김씨 항렬표

29세	30세	31세	32세
기◯ (基◯)	용◯ (用◯)	낙◯ (洛◯)	◯술(◯述) ◯식(◯植)
33세	34세	35세	36세
형◯ (炯◯) 영◯ (榮◯) 병◯ (炳◯)	◯철 (◯喆) ◯균 (◯均) ◯증 (◯增)	종◯ (鐘◯) 석◯ (錫◯) 용◯ (鎔◯)	◯원 (◯源) ◯수 (◯洙) ◯태 (◯泰)
37세	38세	39세	40세
동◯ (東◯) 병◯ (秉◯) 상◯ (相◯)	◯희 (◯熙) ◯홍 (◯烘) ◯현 (◯炫)	규◯ (圭◯) 중◯ (重◯) 선◯ (善◯)	◯전 (◯銓) ◯흠 (◯欽) ◯현 (◯鉉)
41세	42세	43세	44세
해◯ (海◯) 순◯ (淳◯) 영◯ (永◯)	◯상 (◯相) ◯근 (◯柏) ◯백 (◯根)	환◯ (煥◯) 훤◯ (훤◯) 경◯ (炅◯)	

| 제4장 | 부안·부령김씨 등과 명단 1)

우리의 자랑스런 선조님들의 행적을 알기위해 관시조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간략히 알아봤으나 여기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의 우리 씨족으로서 등과한 명단을 『국역 부령김씨 과환록』에 근거하여 함자만 밝혀둡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주'에 적힌 책을 살펴보시고, 뼈대 있는 집안의 왕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위대한 선조님을 본받아 오늘의 자신을 뒤돌아보며 일일신 우일신(日日新又日新: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또 새롭게)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시대

선계편 : 15명

김경수, 김춘, 김인순, 김작신, 김의, 김구, 김여우, 김종화, 김숙우, 김승인, 김격, 김지경, 김용수, 김인정, 김신정

❑ 조선시대

■ 문과(文科)=대과(大科) /홍패(紅牌) 발급

과거 시험 중에서 가장 수준 높고 경쟁이 심했던 것은 고급 문반의 등용문인 문과였다. 대과라고도 불렸던 문과는 3년마다 1번 즉 자(子), 묘(卯), 오(午), 유(酉)년에 시행되는 정기 시험 식년시(式年試) 이외에 부정기 시험으로 별시(別試), 증광시(增廣試), 알성시(謁聖試) 등이 있었다.

이중 정기 시험 식년시에는 1만 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경쟁을 벌여 초시(初試)에서 240명을 각 도의 인구 비율로 뽑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서 갑 3인, 을 7일, 병 23인의 등급을 주어 그 등급에 따라 최고 6품에서 최하 9품까지의 벼슬을 주었다.

---

1) 『국역 부령김씨 과환록』, 2008, 신아출판사

현직 관리의 경우에는 1~4계(階)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과거 시험은 지역 안배를 공정히 하고, 기회 균등의 능력주의를 잘 조화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과에 합격한 자들에게는 붉은 종이에 쓴 합격 증서를 배부했는데 이를 홍패(紅牌)라고도 한다.

우리 부안 · 부령김씨의 급제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문과편 : 31명

김회신, 김보적, 김보칠, 김직손, 김팽석, 김홍덕, 김팽령, 김석필, 김서성, 김계, 김경덕, 김익복, 김치원, 김현, 김지성, 김명열, 김택, 김승백, 김일좌, 김궤, 김성연, 김대, 김운, 김동직, 김규하, 김한익, 김양묵, 김한정, 김상래, 김헌제, 김용현

■ 소과(小科) /백패(白牌) 발급

문과 다음으로 인기가 높았던 시험은 3년마다 각각 100명씩 뽑는 생원시(生員試) 및 진사시(進士試)였다. 이를 소과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 한다.

생원은 경학 능력을, 진사는 문학 능력을 시험하여 이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진학, 혹은 문과 응시의 자격이 주어지고, 바로 하급 관리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생원, 진사시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 각 700명은 도별 안배가 이루어졌고, 복시는 성적순으로 뽑았다.

참고로 도별 안배 상황을 보면, 한성부 200명, 경기도 60명, 충청도 90명, 전라도 90명, 경상도 100명, 강원도 45명, 평안도 45명, 황해도 35명, 함경도 35명 등이다. 소과 합격자들에게는 흰색 종이에 쓴 합격 증서를 배부했고 이를 백패(白牌)라고 한다.

한편 문과와 생진과에는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반역죄인과 탐관오리의 아들, 그리고 재혼한

여자의 아들과 그 손자, 서얼(庶孼)은 응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

○ 사마편 : 110명
김진경, 김회신, 김진효, 김연수, 김직손, 김팽석, 김완, 김선, 김팽령, 김종, 김질, 김석필, 김익손, 김석홍, 김척, 김석옥, 김석량, 김응추, 김열, 김경도, 김경문, 김경장, 김우정, 김승정, 김점, 김수복, 김의복, 김원복, 김충복, 김형복, 김우상, 김응권, 김승복, 김전, 김중의, 김응별, 김대련, 김국번, 김횡, 김승복, 김익복, 김파, 김협, 김태복, 김홍원, 김정복, 김대일, 김진명, 김화, 김련, 김명, 김이복, 김여, 김삭, 김대건, 김우세, 김현, 김연, 김지순, 김단, 김정로, 김호, 김국검, 김지명, 김지성, 김처백, 김지백, 김찬, 김만수, 김극흠, 김지중, 김택, 김정욱, 김흡, 김호겸, 김진적, 김추, 김서경, 김일좌, 김홍탁, 김성연, 김수종, 김덕수, 김민학, 김석경, 김석창, 김수겸, 김후, 김운, 김손, 김수함, 김박, 김홍필, 김수민, 김성규, 김복남, 김옥, 김용필, 김취질, 김설, 김경휘, 김성발, 김상성, 김종택, 김륵, 김정수, 김기재, 김형근, 김봉효, 김영술

■ 무과(武科)와 잡과(雜科)

무반(武班)으로 나아가는 등용문은 무과(武科)이다. 고려 말부터 시작된 무과는 3년마다 28명을 뽑았다. 그 밖에 기술 전문 관료를 뽑는 잡과가 있어 3년마다 역과(차) 19명, 의과 9명, 음양과 9명, 율과 9명, 도합 46명을 뽑았다.

이 중에서 음양과의 천문학만은 해당 과목을 전공한 생도만이 응시할 수 있었으나, 다른 과는 교생이나 부학생들도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었다. 잡과 합격자는 해당 전문 관청에 벼슬하여 최고 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나, 다시 문과를 거치면

3품 이상의 승진도 가능했다.

○ 무과편 : 55명
김관, 김절, 김태지, 김인지, 김우선, 김석손, 김인강, 김여, 김윤손, 김방주, 김응정, 김린, 김상건, 김담, 김립, 김유경, 김기경, 김기원, 김득인, 김우인, 김순, 김옥신, 김이원, 김기룡, 김세정, 김거, 김의건, 김몽두, 김응건, 김용발, 김호발, 김세방, 김득일, 김태검, 김익룡, 김응룡, 김효증, 김시좌, 김기룡, 김진규, 김하운, 김진위, 김수한, 김남전, 김남준, 김신일, 김석황, 김광수, 김한두, 김광하, 김환감, 김낙구, 김련, 김현식, 김병갑

■ 음서(蔭敍)와 천거 제도(薦擧制度)

과거 이외의 관리 채용 방법 중 하나인 천거 제도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초야에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대개 3품 이상의 고관이 천거권을 갖고, 천거된 사람은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천거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거한 사람이 함께 벌을 받게 되어 아무나 함부로 천거할 수는 없었다.

고려 시대 5품 이상 관리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에 주어지던 음서의 특권은 조선 시대 들어와 크게 축소되었다. 즉, 음서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2품 이상으로 제한되고, 3품의 관원에게는 아들, 손자만, 이조, 병조, 삼사(三司) 등의 관원은 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음서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취재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서리직(胥吏職)을 주었으며, 고관으로 승진하려면 역시 문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경향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만큼 조선 건국 후에는 음서의 권위가 실추하고 본인의

능력이 출세를 좌우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투명한 세상도 16세기를 기점으로 점점 혼탁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며 과거 시험에도 부정이 횡행하게 되었다.

□ 음사편 : 502명(소윤공104, 군사공 311, 소감공 87)

○ 소윤공파 : 104명
김세영, 김진, 김자미, 김자현, 김석손, 김덕손, 김영손, 김순손, 김영견, 김붕, 김순양, 김계양, 김응추, 김응백, 김응서, 김응상, 김훈, 김면, 김천히, 김문해, 김상곤, 김인연, 김철, 김경방, 김수인, 김치인, 김찬인, 김정발, 김성필, 김응해, 김응회, 김응위, 김응원, 김일남, 김지혁, 김두창, 김지문 김시재 김시장 김성인, 김태형, 김태기, 김려랑, 김두광, 김수광, 김화채, 김진환, 김진혁, 김인익, 김취억, 김진욱, 김익창, 김왈수, 김동직, 김언택, 김하숙, 김시박, 김경준, 김흥태, 김성재, 김경덕, 김의열, 김시추, 김윤하, 김명례, 김성필, 김홍선, 김홍진, 김도풍, 김하상, 김주상, 김우상, 김규상, 김필상, 김의상, 김석상, 김종갑, 김복민, 김용갑, 김영수, 김기환, 김주용, 김관용, 김계용, 김용균, 김석구, 김우채, 김정오, 김낙진, 김한근, 김한봉, 김한장, 김종순, 김중기, 김철수, 김영욱, 김만술, 김기한, 김문학, 김한문, 김장한, 김창한, 김장명, 김병식

○ 군사공파 : 311명
김광서, 김당, 김취, 김회윤, 김선, 김차손, 김후손, 김봉손, 김숙손, 김석현, 김석충, 김우, 김국주, 김세주, 김서운, 김서진, 김서규, 김서벽, 김희, 김선, 김쉬, 김개, 김복, 김광, 김경정, 김의정, 김백윤, 김중윤, 김영무, 김윤복, 김설복, 김만복, 김언복, 김인복, 김명복, 김유복, 김효침, 김효순, 김효사, 김효평,

김효길, 김충간, 김경순, 김응규, 김진복, 김장, 김현, 김섬, 김덕구, 김덕린, 김억일, 김중일, 김경명, 김준명, 김증, 김양, 김해, 김지, 김진경, 김산종, 김자겸, 김효남, 김취남, 김진남, 김력, 김즙, 김운학, 김여근, 김로, 김주, 김곡, 김우길, 김류, 김연, 김기, 김진길, 김정길, 김관길, 김이길, 김숭업, 김경허, 김경두, 김극온, 김극량, 김극관, 김극양, 김극명, 김극장, 김이겸, 김항, 김감, 김희수, 김흘, 김응구, 김윤주, 김석보, 김모동, 김동식, 김용열, 김유열, 김선열, 김후열, 김득열, 김상열, 김택량, 김택길, 김택효, 김택삼, 김지강, 김지겸, 김건, 김진해, 김급, 김인, 김의 김한추, 김용환, 김번, 김문, 김공, 김린, 김언, 김증, 김기, 김장, 김오, 김수, 김중, 김훈, 김방, 김보, 김시, 김저, 김신, 김절, 김창, 김세광, 김세융, 김세열, 김세량, 김세기, 김성철, 김진명, 김중백, 김용백, 김진백, 김중석, 김홍도, 김홍유, 김세후, 김진항, 김흥태, 김계문, 김수장, 김수강, 김수태, 김석좌, 김익좌, 김태좌, 김명좌, 김영기, 김재백, 김성, 김오, 김각, 김갑, 김무, 김후, 김참, 김회, 김잠, 김홍, 김후, 김하정, 김하서, 김한주, 김동구, 김황, 김공, 김린, 김효칙, 김수일, 김운종, 김방형, 김일항, 김덕서, 김덕부, 김덕희, 김덕손, 김덕몽, 김덕빈, 김덕렴, 김명항, 김관, 김상신, 김시련, 김익련, 김도만, 김석겸, 김인상, 김구현, 김수희, 김재, 김즙, 김환, 김억, 김영, 김전, 김건, 김격, 김욱, 김우, 김도명, 김종해, 김연장, 김계칠, 김동호, 김명두, 김운복, 김임, 김안택, 김덕중, 김득천, 김태문, 김득손, 김덕후, 김계한, 김태윤, 김종언, 김치각, 김의수, 김정하, 김명하, 김수민, 김이하, 김진하, 김풍하, 김두남, 김사하, 김진백, 김제하, 김주일, 김인형, 김서각, 김복하, 김기후, 김기선, 김명룡, 김홍조, 김학효, 김천주, 김정조, 김수한, 김상순, 김응상, 김복현, 김원진, 김백감, 김정활, 김기창, 김기종, 김옥, 김석황, 김태석, 김석열, 김홍석, 김해석, 김복환, 김성필, 김동규, 김대흥, 김용철, 김도묵,

김순묵, 김팔묵, 김한종, 김한필, 김한섭, 김한규, 김응현, 김원달, 김두일, 김양수, 김규수, 김두봉, 김재국, 김낙련, 김상만, 김낙섭, 김낙규, 김기욱, 김익상, 김낙인, 김낙린, 김낙룡, 김현상, 김낙상, 김진조, 김제진, 김낙두, 김낙철, 김낙기, 김연욱, 김낙희, 김낙종, 김원술, 김임술, 김봉술, 김학술, 김영선, 김이술

○ 소감공파 : 87명

김광신, 김후, 김곤, 김선우, 김득청, 김윤기, 김윤려, 김국성, 김종, 김유, 김연손, 김개, 김련, 김봉수, 김응기, 김언서, 김덕복, 김윤, 김연, 김황, 김세호, 김광윤, 김용학, 김명행, 김순, 김성괄, 김성탁, 김성휼, 김성흘, 김광익, 김한우, 김방우, 김상우, 김탕우, 김득시, 김변, 김몽우, 김해, 김유, 김길, 김발, 김원룡, 김택룡, 김경룡, 김태룡, 김진룡, 김진, 김감, 김수휘, 김수관, 김수강, 김시일, 김태권, 김시건, 김헌민, 김정익, 김정만, 김정준, 김정우, 김정하, 김정서, 김정홍, 김석종, 김이봉, 김여옥, 김응한, 김흠, 김장, 김한규, 김동좌, 김문필, 김재복, 김여화, 김석재, 김인종, 김덕록, 김수영, 김수철, 김풍희, 김낙동, 김낙봉, 김낙하, 김낙몽, 김훈식, 김해첨, 김인애, 김현배

| 제5장 | 지포집(止浦集) 2)

고려후기 학자 김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01년에 간행한 시문집.

분야	한문학	권수	: 4권 2책
유형	문헌	제작 시기	1801년(순조 1)(간행), 1973년(영인간행)
시대	고려		
성격	시문집	간행자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1973)
편저자	김구	소장처	규장각 도서

□ 서지사항

4권 2책. 본권이 3권, 연보가 1권이다. 그의 18대손 동호(東瀨)가 정조 연간에 『동문선』·『고려사』 등에서 유문(遺文)을 뽑았다. 16대손 홍철(弘哲)이 편찬한 연보를 추가 편집하고 「신도비문병명 神道碑文幷銘」을 붙여 1801년(순조 1)에 간행하였다.

□ 내용

『지포집』은 권1에 시 12수, 권2에 응제록(應製錄)으로 교책(敎冊) 5편, 표전(表箋) 69편, 권3에 계(啓) 1편, 소(疏) 5편, 서(書) 3편, 비문 1편이 있다. 부록으로 연보와 「신도비문병명」이 있다. 앞에 1795년(정조 19)에 쓴 송환기(宋煥箕)의 서(序)가 있다.

뒤에 1801년에 쓴 김인순(金麟淳)의 발(跋)이 있다. 그의 글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은 그의 사후 500여 년이 지나서 문집으로 편찬되었으므로 거의 산실(散失)되고 전재(轉載)된 것만이 남아 있다.

『지포집』 권1에 실린 김구의 시 가운데에 칠언고시의 「과서경 過西京」, 「과철주 過鐵州」와 칠언절구의 「조원각경 嘲圓覺經」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다. 그의 시 가운데에 「낙이화 落梨花」가 가장 회자(膾炙)된다.

그의 시는 대체로 말이 공교롭고 화미(華美)하나 넓고 깊고 기운차지 못하다. 오랫동안 문형(대제학)을 잡은 김구는 자연히 왕명에 의하여 글을 짓는 응제록이 많다. 이 글들이 권2에 수록되어 있다.

『지포집』의 교책 5편은 「왕세자옥책문 王世子玉冊文」과 「왕세자를 봉하는 글」, 최자(崔滋)에게 주는 교서와 조칙, 또 왕후의 존시(尊謚)를 올리는 「죽책문」 등이다.

『지포집』의 표전 69편은 거의가 원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진정표 陳情表」·「고주표 告奏表」·「진봉표 進奉表」·「물장 物狀」·「방물표 方物表」 등에는 모두가 원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는 고충이 담겨져 있다.

원나라에서 요구하는 약재·매·처녀 등을 바치면서 관용을 애걸하고 있다. 또, 배중손(裵仲孫)의 삼별초란을 보고하기도 했다. 원나라의 요구에 따라 관명과 작호(爵號)를 변경한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 또는 원나라의 행사를 축하하는 내용 등이 있다.

『지포집』 권3에 실린 계는 김상국(金相國)·김인경(金仁鏡)에게 올린 것이다. 김구는 어릴 때부터 시문에 능하고 국학진사

(國學進士)에 뽑혀 매년 여름 과제(課題)에 다른 동료보다 뛰어나서 모두 그가 장원이 되리라 여겼다. 그런데 1232년(고종 19)에 문과에 차석으로 급제하였다. 당시 지공거(知貢擧) 김인경이 이를 한(恨)하여 그를 위로하니 감사하여 이 계를 올렸던 것이다.

『지포집』 3권의 소는 불법에 관한 해설과 부처에게 나라의 안위와 생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피폐한 나라의 운명을 타개하고 원나라와의 굴욕적인 관계에서 입는 고충을 떨어버리고자 몸부림치는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지포집』 3권에 실린 편지는 원나라의 장학사(張學士)에게 보낸 1편, 왕학사(王學士)에게 보낸 2편이다. 상대가 모두 종주국의 대신들이어서 합하(閤下)라 높이고 이 나라에 관용을 베풀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글은 당시 원나라와의 관계를 살피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지포집』 권3 끝에 있는 비문은 와룡산의 진명국사(眞明國師)의 비문이다. 부록에는 연보와 정채(鄭寀)가 지은 「신도비문 병명」이 있다.

『지포집』은 1973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 간행한 『고려명현집 2』에 본집을 수록하였다. 이춘희(李春熙)의 해제가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 제6장 | 고려평장사 문정공 신도비문 원문

<高麗平章事 文貞公神道碑銘 原文>

一日, 金佐郎東稷與其弟東灝, 自湖南來, 以其先祖文貞公墓隧之文來, 托不佞, 惟其世遠跡昧, 有難攷徵. 及見附錄石潭李先生撰公後孫家文字, 有曰: "扶安維金, 累善積功, 顯顯淸譽, 秩秩家法." 此是先生推本溯源之論, 則其顯顯之譽, 秩秩之法, 盖由文貞積累之德也. 以是爲銘足矣. 仍以刊傳及家牒所載者, 參互而序次焉.

公諱坵, 字次山, 系出新羅國姓, 諱春扶寧府院君, 卽公高祖也. 曾祖諱仁順, 隱德不仕, 祖諱作新, 右僕射兼吏部尙書扶寧君, 考諱宜, 閤門祗侯右僕射, 妣羅州金氏. 以高麗熙宗七年辛未生. 公自幼容貌端重, 氣度廣深, 四五歲多通經史, 又善屬詩文, 時人稱神童.

年十二登造士選, 二十二擢文科第二, 知貢擧金仁鏡, 恨不置于魁, 以乙科名亦居第二, 引和范傳衣故事, 慰藉之, 公作啓以謝之, 有曰: "魯公出魯公門, 喜襲傳衣之跡." 李文順奎報語人曰 : "繼我秉文衡者, 必此人. "初補定遠府司錄, 爲同縣人黃閣寶所構捏, 改濟州通判. 時崔文淸滋為濟副使, 見公詞賦, 謂其子曰 : "此可作詩 賦準繩."

濟之田, 舊無疆畔, 强暴之類, 有因緣兼幷(並)者, 且多鹿馬害穀之患, 民病之, 公遂築石為垣, 正其經界, 防其蹂躪, 民至今賴之.

攷考(政)滿, 入拜翰林. 庚子, 充書狀, 赴蒙古, 有北征錄行于世. 在翰院, 凡八歲遷國學直講, 時儒道晦塞, 佛法縱橫, 權臣崔沆, 世專國柄, 小拂其意, 立撝之, 沆彫佛經, 脅公跋之, 公詩以譏之, 曰: "蜂歌蝶舞百花新, 摠是華藏藏裏珍. 終日啾啾說圓覺, 不如緘口過殘春." 沆大怒曰: "謂我緘口耶?" 遂左遷.

元宗癸亥, 蒙主怒本國, 嘖言頻繁, 公撰修表咨, 詞致懇到, 蒙主感悟, 至有賞賚. 平章事李藏用, 門下事柳璥, 交薦公, 擢拜左

諫議兼翰林學士知制誥，公上表力辭，王重公詞翰，特批曰："稟東壁之精，擅西京之手．"丁卯，兼修撰官，與李藏用等修神熙康三朝實錄，己巳拜大司成，與柳璥論林衍等小羣之罪，閹寺輩用事之弊，宦官金鏡深銜之，誣公怨國，元宗切責公，將罪之，以掌國詞命，特原之，時王世子好學，與公唱酬．有《龍樓集》．冬，陞左僕射，歷樞密院副使，政堂文學，吏部尙書，兼寶文閣太學士．

癸酉秋，王率羣臣賀節，內竪康允紹，阿付達魯花赤，胡服直入，自比客使，見王不拜，公劾之，達魯花赤大怒，公終不動，時論韙之．冬，以參知政事除知貢擧，取鄭賢佐等，士林咸服其得人．公建言："後生決科，全拋文字，著述甚魯莽，請試製參下文臣，賞其能者．"王允之．甲戌，陞拜平章事，乙亥改僉議府贊成事判版圖司事．

丙子，公言："舌人皆微賤庸瑣，傳語多不以實，或懷姦濟私，貽害朝家，請置通文館，令禁內學館，參外年小者，誦習漢語，俾正譯語之失．"丁丑，拜世子貳師，與柳璥等同修高宗實錄．戊寅，遷參文學事．是年九月丁未考終．享年六十八．王命弔誄以平章啣書之，謚曰文貞，官庇葬事於松京楸山麓，移葬于 扶安邊山知止浦艮坐之原．

配 慶州崔氏 禮賓卿琈之女 生三男一女，男長汝盂刑部尙書兼文翰學士，女適贊成事 鄭瑎，男 叔盂 西都監判官，男宗盂典校副令，庶男曰承仁大司成，江陵按撫使令，耆年代己逖後世 雲仍不能盡錄而 其中有有行 誼 經顯職者如汝盂之子恪吏部尙書，孫之冏典儀，曾孫龍壽密直副使，玄孫 仁鼎中郎將，信鼎監察侍承，仁鼎之子世英漢城少尹，光叙高阜軍事，光信少監，光矩郎將，兄弟見麗運將訖志存罔僕大歸貫鄉，世英孫自美司正號月溪自賢縣監淸州鎭管節制都尉，五代孫 應瑞 從仕郎，應祥 將仕郎典涓司參奉，景德，景文，應敎 壬辰倡義，六代孫 應龍 漢城左尹，鐵 遷逸直長壬辰倡義 號雲塢，七代孫 守仁 展力副尉除守門將壬辰亂殉節， 得仁司儀， 友仁副護軍 兄弟丁卯扈駕丙子倡

義，應祥孫慶邦軍資監僉正，曾孫成弼號東岡僉正樞．光叙孫 懷愼弘文館教理 侍講院 侍職號草堂，甫漆贇科僉中樞，直孫弘文館博士，次孫南臺持平，後孫忠武衛副司直，玄孫彭齡博士，錫弘己卯名賢號甕泉，錫賢習讀，錫弼教理，錫忠瑞承仕郎 三兄弟同有錄,錫良進士號瓮村，宗生員學行名世號梅竹，五代孫 瑞星副應敎，瑞星奉事，坫進士號梅堂，啓黃海監司號雲江，彭齡孫英武參奉壬辰倡義，曾孫億鎰主簿有純孝碑壬辰倡義 號 晩休堂，玄孫 克溫從父學義贈左贊成，六代孫 瑞慶生員學文絶人號澹溪，瑞星孫垓 直長壬倡義 號 退憂堂，錫賢子 滌進士以學行除參奉，錫弼曾孫弘遠生員壬辰倡義羅州牧使號海翁， 錫忠孫應虬參奉有學行， 應鱉司馬陞資憲玄孫宅三以學行除主簿號鼈巖， 後孫曾孫益福郡守壬辰倡義號金陵， 泰福號甕井壬辰倡義守靈光城有守城錄，玄孫澕司馬兩試 號在澗堂，沇進士丙亂倡義號陶村，湍以學行薦爲縣監甲子亂倡義 有募義錄，五代孫之鳴號兩忘齋司馬，之白號澹虛齋生員， 宗孫굉(金宏)號竹溪生進兩壯， 銘號火谷進士兩中，曾孫致遠文承旨世稱直節公，玄孫灝文承旨,五代孫璞號露軒有學行，光信子坤牧使 玄孫得淸僉正，九代孫漢祐壬亂扈駕龍灣，子元龍府使，承白府使 同丙亂扈駕南漢上特賜錄券八貼屛風曰 東稷，東灝 卽請文者而湍之五代孫也

公稟性悃愊無華，端方有度．釋褐以後，不汲汲於進取，與安文成公裕為道義交，講磨經傳,以興學為務，其所抱負非尋常俗儒之比，故 立朝言議,實多可觀．斥林衍之專權而憂時嫉惡之心著矣．劾允紹之猖狂，而尊主遏夷之義凜矣．元學士王鶚見公表文，恨不見面，則公之文章可謂華國矣．後來諸賢之稱道甚盛,奇高峯大升是經術君子，而以德行推公，除四佳居正卽文苑宗匠，而以傑然稱公，觀於此,可知公卓然為前代之名臣矣．不佞之最所景歎者，勝國之時,竺教肆行，上下奔波以求福田利，益彼崔沇之丐文媚佛也，公獨正色斥之，雖死靡悔，其闢異扶正之功，實有吾東方無窮之惠矣．公卜 居于縣之仙鶴洞，晩又築室于邊山海上，名之以知止浦， 休退之暇， 琴書自娛以訓誨後學己任， 嚴立課程，

有育才之效，歿後邑之章甫立祠于縣之道洞以享之，其遺風餘韻至今未沫，盖公子孫多以德行節義著稱，或配侑公祠，或別祭鄉社，孰謂醴泉之無源耶？公之墓經亂失葩久矣，我肅廟戊午後裔弘逴葬其父，得公墓誌，匿不出，丙申，弘逴死，事始發．戊戌，諸子孫，訟辦，遂去其逼葬者，公之兆域，於是復顯，遂封而表之．不佞於公，亦彌甥也，因賢孫之託，不避僭猥，撰次如右，系之以銘．銘曰：允矣文貞,天賦英特，前代第一．少日詞藻．華聞藹蔚 · 前輩推轂 立朝言議· 不饒貴强·擧世爭仰．遽中毒螫．十載沈屈，會無悔色．歷事麗朝，忠勤采篤．終始一節，深闢左道．力扶儒教，其切尤大．餘慶綿延，後承多賢．天道卽然，余用作銘．樹之墓徑，行者致敬．

| 제7장 | 나의 뿌리 알아보기(가계도)

(　　)대파 / (　　)소파 / (　　)지파

1세 (29)	2세 (30)	3세 (31)	4세 (32)	5세 (33)
鎰 일	箕輅 기로	希寶 희보	景修 경수	春 춘
태자	정원대사	은거공	상서공	부령부원군
6세 (34)	7세 (35)	8세 (36)	9세 (37)	10세 (38)
仁順 인순	作辛 작신	宜 의	垢 구	汝盂 여우
부령군	우복야	복야공	문정공	충선공
11세 (39)	12세 (40)	13세 (41)	14세 (42)	15세 (43)
恪각 이부상서 軾식 좌승지공파	之冏 지경	龍壽 용수	인정仁鼎 증랑장 신정信鼎 감찰시승공	세영世英 광서光叙 광신光信 광구光矩 감찰시승공파
이부상서	전의공	대제학공		

<나의 뿌리 알아보기>

- 1세(世) 시조(始祖) _____
- 9세(世) 중시조(中始祖):_____
- 세(世):_____공파 대파조 휘_____
- 세(世):_____공파 소파조 휘_____
- 세(世):_____공파 지파조 휘_____
- 세(世): 현조부모:_____/_____
- 세(世): 고조부모:_____/_____
- 세(世): 증조부모:_____/_____
- 세(世): 조부모:_____/_____
- 세(世): 부모:_____/_____
- 세(世): 나:_____

마의태자

작사: 정두수 / 작곡: 임종수 / 노래: 조영남

행치령 고개 넘어 백자동 고개 넘어
산새도 오지 않는 깊은 산골 갑둔리
달빛보다 더 푸른 천추의 그 푸른 나라
한 나라를 찾겠노라
그 큰 뜻을 품은 채 어찌 눈을 감으셨나 우리 님

하늘이 버리셨나 바람도 스산하다
무덤조차 잊어버린 첩첩산중 김부리
꽃보다 더 붉은 망국의 한
세월아 말을 하라
통한의 그 역사 눈을 감으셨나
마의태자 우리 님



2003년 김창묵 씨가 행치령에 설치한
마의태자 노래비

행치령은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와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를 잇는 고개이다. 남쪽으로 가면 수하리이고 북쪽으로 가면 상남리이다. 또한 정상에서 수하리 쪽으로 200m 내려가면 왼쪽으로 진입로가 있는데 그 길은 홍천군 내면 방내리로 가는 길이다. 정상에서 상남면 쪽은 경사가 급하지만 시원하게 내려 달리는 직선도로이다.

서석면 쪽은 경사가 급하고 굽은 구절도로이다. 고갯마루에 2003년 4월 김창묵 씨가 세운 조영남이 부른 마의태자 노래비가 있다. 노래 가사의 갑둔리는 신남면에 있는 지명이고, 백자동은 상남면 김부리에 있는 지명으로 마의태자와 얽힌 설화가 전해온다

부안·부령김씨
서울 경기종친회 임원 명단

(2019. 12. 05. 현재)

회　　장	김삼철
명예회장	김채옥
고　　문	김형천 김종원
발전위원장	김경엽
수석부회장	김용철
섭외부회장	김석길
부 회 장	김형록
부 회 장	김명길
감　　사	김용대 김찬희
사무국장	김영춘
조직국장	김형춘
총무부장	김　철
재무부장	김명희
섭외부장	김보철
홍보부장	김병섭
여성부장	김점례

이 책은 **부안·부령김씨 서울·경기종친회**에서 애족의 정신으로 2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가문의 뿌리를 알아 숭조사상을 통하여 자긍심을 갖고, 자아혁신과 종친 간의 친목, 종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서울·경기 김삼철 회장님의 괘척으로 만들어진 뿌리교육 자료입니다.



뿌리교육
부안·부령김씨의 뿌리

2019년 12월 1일 인쇄
2019년 12월 5일 발행

편저자: 김형균, 김종원, 김창원
감수자: 김채옥, 김형천, 김형영, 김영춘
발행인: 김삼철
인쇄소: 서림재
발행처: **부안·부령김씨 서울·경기 종친회**

부안군 출신 독립유공자 '김낙선'-부안군청 자료

金洛先 생몰년도 : 1884 ~ 1913.10.10

출생지	부안군 운동계열 의병 훈격(연도) 애국장(1995)
참고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624면

공적내용

- 국호남 의진에 참가하여 부안.흥덕 등지에서 활약. 1907년 일제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기화로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인 군대까지 해산
- 군대 해산을 계기로 민족의 무력이 상실된 것을 통분해 하던 대한제국의 병사들이 스스로 의병부대를 조직. 일제에 투쟁하면서 기존 의병부대에 투신하여 일제에 항전함으로써 의병전쟁을 국민전쟁으로 발전시켜감.
- 이 시기에 국호남 의병장이 의진을 조직하여 대일투쟁을 전개하자 김낙선은 1909년 4월 10일 국호남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4월 15일 군자금 군수품 수합활동에 나섬
- 국호남 의병장의 지시에 따라 채봉선.최동이.박춘집 등 동료의병 15명과 함께 총기 10정을 휴대하고, 흥덕 입현촌에 들어가 군수품을 수합하고 4월 18일 부안군 입하면 입석리 등에서 군자금을 모금함
- 4월 25일 부안군 건서면 화전동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피체되어 1909년 7월 28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옥고를 치름

-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음상세정보

金相述 생몰년도 : 1984.11.22. ~ 1931.11.6

출생지	부안군 운동계열 만주방면 훈격(연도) 건국포장(2008)
참고자료	판결문(전주지방법원:1922.8.29)

공적내용

- 1920년 5월 독립운동을 위해 기독교 전도사 김방욱과 함께 중국 장백현으로 가서 대한독립군비총단 비서부장 윤석보를 만났음.
- 대한독립군비총단의 사령서를 교부받고 1920년 6, 7월경 귀국하여 동지규합과 군자금모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에 체포됨.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등의 위반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
-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음.